

어린이 축산물 상식왕 탄생, 우리축산물 퀴즈왕 선발대회

고객홍보팀



11일, 갑작스러운 비에 따듯한 음료가 절로 당길 만큼 기온이 뚝 떨어졌던 일요일. 경기 과천시민회관 체육관은 초겨울 같은 날씨와는 달리 새봄과 같은 노란 활기에 들썩였다.

“들어가기 전에 조금 더 봐야지. 이거 엄마가 뽑아온 것 좀 더 봐봐.” 한 뭉텅이 인쇄물을 뒤적이는 모녀나, “눈으로 보니 또 다르네. 이런 게 좋은 닭고기라는 거잖아?” 축산물품질평가원이 꾸러놓은 홍보부스 앞에서 실물 모형과 더불어 공부한 것을 재확인하는 가족까지. 모두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올해로 6회차인 ‘우리축산물 퀴즈왕 선발대회’다.

미래 축산 소비의 주역인 전국의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축산물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심어주고자 기획된 이 행사는 올해 235명이 사전예선에 참가하며 우리 축산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본선 당일에도



이중에서 문제가 나오진 않을까?.. 축평원 홍보부스



내리는 비에도 장사진을 이룬 장외 이벤트장

행사관계자들은 내리는 비에 외부이벤트와 포토월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이벤트 부스는 내리는 비에도 아랑곳없이 길게 늘어선 줄이 성공 여부를 대변했다. 본 행사는 1시부터 본선 참가 접수와 사전행사도 11시부터 였지만 10시가 되기 전부터 하나둘 모여든 사람들이 긴장 반 기대 반으로 행사 개시를 손꼽아 기다렸다.

사전접수가 시작되고 참가 학생들이 단체복으로 갈아입기 시작하자 노란색 단체복 색만큼이나 산뜻한 아이들의 기운이 현장을 달구기 시작했다. 제일 작은 사이즈도 원피스가 되는 작은 아이부터 제일 큰 사이즈도 풀티처럼 소화하는 큰 아이까지 다양한 참가자만큼이나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행사장을 채웠다.



한우와 귀여운 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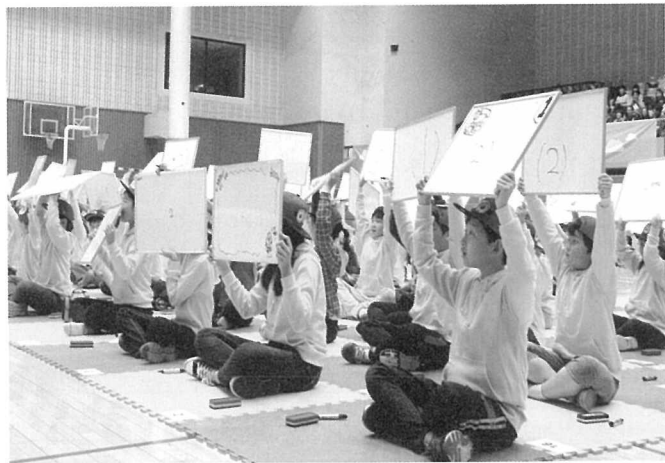


너는 로맨스, 나는... 그냥 씬나~~!!

그중의 하나가 우리 한우와 아이들의 이야기. 행사장 곳곳을 누비며 아이들과 함께 한 한우(인형옷)가 있었다. 눈을 땡그라니 뜨고 한우를 뻔히 바라보던 작은 아이, “소가 두발로 걸어요~.” 하며 놀라워하는 모습은 ‘사랑스러움’ 그 자체였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한우의 꼬리는 전혀 다른 차원에 있었으니, 장난꾸러기 친구가 꼬리를 잡고 정신없이 흔들며 신나했던 것. 개중에는 한우의 눈

부위를 부여잡고 들여다보며 안에 누가 있나 확인하려 애쓰는 아이도 있었고, 심지어 친근하게 어깨동무를 하는 한우에 변태라도 만난 냥 온 몸을 딱딱히 굳히더니 슬금슬금 몸을 빼다 줄행랑 놓은 아이도 있었다.

한우인형에 대한 반응이 극과 극이었듯 행사장의 모습도 참 다채로웠다. 우선, 본선에 참가한 학생들은 긴장이 역력한 모습으로 자리를 잡고 앉아 사전 MC의 농담에도 입 꼬리를 쉽게 올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호응이 큰 친구 1명에게 선물을 주자 분위기는 바로 반전돼 나중에



두근두근! 정답 발표를 기다리며



안전사고를 걱정하는 부탁의 말을 해야 했을 만큼 격렬해졌다.

또한 참가자 중에는 떨어졌다고 탈락자석 구석에 앉아 머리를 쥐어 잡고 눈물을 쏟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틀린 답을 슬쩍 지우고 맞았다고 우기다가 뒤늦게야 자리를 뜬 친구도 있었다. 모르는 문제에 손을 떨다가 OX퀴즈도 아니건만 답판에 'O'를 크게 적은 학생이 있는가 하면, 당당히 눈을 돌려 옆 친구의 답을 줄곧 베껴 적다 자리를 다시 섞어 앉은 후 바로 떨어진 참가자도 있었다.

행사에 푹 빠져 에피소드를 더한 이들 중에는 참가학생들의 부모님도 있었다. 일례로 사전행사 중 부모님들의 자리 구역을 나눠 응원전을 했는데, 그 격렬함은 상상 이상이었다. 온몸을 내던져 팔찌뼉뼉 뛰기까지 하는 부모님의 모습은 아이보다 더 들떠보였다. 여기서 반전은 상품이 머그컵 하나였다는 것. 1등 했다고 환호성을 지르다가 상품발표에 주저앉던 모습은 이날의 베스트 컷 중 하나로 뽑기에 손색없었다. (다만, 1등 수상자들에게는 심심한 위로를 보낸다.)

이날의 최고의 순간은 의심할 여지없이 시상식이다. 치열한 경쟁 끝에 인천 굴포초등학교 6학년 김나현 학생이 대상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부상으로는 최신형 노트북이 수여됐다.

김나현 양은 “원래 고기를 좋아하지만 대회에 참가하면서 축산물에 대해 열심히 공부했다.”며 “찍은 문제도 있었는데, 그래도 대상을 받게 돼 기분이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리고 이날 대상 학생보다 더 크게 기뻐한 사람이 있으니 학생의 부모님. 그럴 만도 한 것이 딸이 대상을 받은 것 뿐 아니라 동생인 아들이 최우수상을 나란히 수상한 것이다. 함께 공부한 자녀 둘이 나란히, 그것도 큰 상을 받았으니 왜 안 그렇겠는가.

한편, 이날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축산물품질평가원 유무상 평가사업본부장과 전국한우협회 황엽 전무, 한우자조금 관리위원회 운영탁 사무국장은 우리 축산물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져준 학생과 그 가족들께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아울러 “오늘 이후로 더 맛있고 건강한 고기를 드리기 위해 노력할 테니 앞으로 더 많이 사랑해주고, 주위 친구들에게도 잘 알려 달라.”고 부탁했다. **등급정보**



“사랑해요” 딸 vs “레고사줘” 아들



“내 새끼가 최고다~~!!!”



대상 김나현 학생과 최우수상 김승현 학생 가족